

인구감소 시대 속 ‘주목’... 전북 청년 인구 구조 견인

30대 청년은 지역 활력의 핵심 인구층이다. 일자리와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려 한 지역에 정착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익산시가 일찌감치 30대 청년을 위한 지원책 발굴에 열을 올린 것도 지역 활력을 위한 장기적 전략이었다. 그리고 결국 그 진심 어린 노력의 성과가 드러내기 시작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지만 익산은 올해 전북 14개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30대 인구를 유입했다. 지방 중소도시인 익산은 어떻게 청년의 선택을 받는 매력적인 도시가 됐을까? /편집자 주



익산시가 인구감소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다.

익산시는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올해 가장 많은 30대 청년 인구 유입을 기록하며, '활력 도시'로의 전환 흐름을 실질적인 수치로 입증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11월 익산의 30대 인구는 68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북 전체 순증 인원(217명)의 세 배를 웃도는 수치다. 2~3위인 이웃 도시의 수치를 더해 익산의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할 만큼, 사실상 익산이 전북 청년 인구 구조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대 인구 증가, 도시 활력의 바로미터

30대 청년층은 도시의 '활력'과 직결되는 핵심 세대다. 일자리와 주거 기반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전환기의 인구이기 때문이다.

일찌감치 익산은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촘촘한 정책 설계를 통해, 단순 주소를 이전이 아닌 생활 기반 이주와 가족 형성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도시가 살아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지방소멸 위기를 넘는 인구 구조 전환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전국 최초 '청년서점'... 청년정책 선도도 시로 진화

그간 익산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을 다해왔다. 앞서 시는 전국 최초로 모든 청년 지원을 모아놓은 '청년시청'을 신설했으며, 올해는 시정운영 방향을 '그레이트 익산 위드 청년(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으로 설정한 바 있다.

시가 추진해온 '다이어룸 취업박람회', '청년 창업캠프' 등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냈고, 근로자 통근버스나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타지역 이동 근로자와 학생을 위한 열차운임비 지원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문화·생활 적응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입청년 웰컴박스' 등 정착



전북청년 생생이디어



청년 성장 한뼘 경연대회

지원 패키지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시는 내년에는 '두 잇(DO IT)' 청년이라는 구호 아래 청년이 주도하는 정책 기획, 생생 아이디어 발굴 청년마을 만들기, 고향올라 정착 사업 등 청년이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이자 실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주거정책 효과 뚜렷... 순이동 사유 주택 인구 이동 통계에서도 정책 효과는 뚜렷했다. 올해 익산시는 여러 달 동안 전출보다 전입이



올해 청년친화현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도내 14개 시군 중 30대 인구 유입 1위...전북 전체 증가의 3배 단순 전입 아닌 정착의 흐름... 주거·출산·생활 기반 다 잡아 내년엔 '두 잇(DO IT)' 청년 구호 아래 청년 주도 정책 펼칠 것

많은 '순유입 구조'를 보였다. 순이동 사유 중에는 '주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양질의 신규 아파트 공급과 익산형 전세·매매 대출 이자 지원 등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이 실질적 정주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음을 방증한다.

청년이 지역에 들어와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설계해준 덕분에 '머무는 도시'가 아닌

'사는 도시' 익산으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셈이다.

▲출산 증가·생활인구 확대... 질적 변화도 본격화

올해 익산의 출생아 수는 1~11월 기준 1,009명으로 2년 만에 1,000명대를 회복했다. 이는 청년층 정착이 실제 출산으로 연결되는 흐름



청년의 날 축제 부스 운영

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생활인구 통계에서도 변화는 확인된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익산의 생활인구는 72만5,000명으로 등록인구의 2.7배를 넘었다. 익산이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머물고 다시 찾는 도시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민들의 높은 정책 체감도는 다양한 성과로 나타난다. 올해 시는 전북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24억원 확보) 등 각종 평가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인구가 늘어난 것만이 아니라, 도시에 활력이 생기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아이를 낳으며 삶을 그려가는 구조가 정착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에도 생활·정주인구를 아우르는 실질적 인구정책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대한민국 1호 인구활력도시 익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제2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2026년 1월 8일(목)~1월 9일(금)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북특별자치도스키협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